

지혜 IV.

이성과 지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탕자의 비유’ 에서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

아버지는 큰 아들이 거칠고 모질게 대들어도 비난섞인 꾸지람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되받아치지도, 잘못을 꼬집는 법도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을뿐더러 큰 아들의 처신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니저러니 하는 평가를 단숨에 뛰어넘어 곧바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야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_ Henri Nouwen ‘탕자의 귀향’ 에서

1. 큰 아들의 항변

[누가복음 15:27-30]

27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항변한다(29-30절). 큰 아들의 항변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는 분명했다. 가문의 수치와도 같은 동생과(30절) 비교할 때 자기의 행동은 너무나 옳았다.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의 명령도 어긴 일도 없다. 그런데 자기는 송아지는 커녕, 염소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 그 억울함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되었다.

아버지를 향한 큰 아들 주장의 핵심은 ‘자기 정당성’이다. ‘적어도 동생과 비교할 때 나는 옳다. 아버지는 옳고 그른 것도 모른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은, 헨리나우엔의 글처럼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기주장의 변명이 없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옳고 그름의 평가를 뛰어넘어 큰 아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아들아 나와 나의 관계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관계가 아니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란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존재적 사랑으로 큰 아들의 옳고 그름으로부터 나오는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내신다. 어떤 저항도 없다.

2. 지성과 이성만 과연 절대적인가?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사고구조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이 절대적이다. 증명은 보여주는 것이다. 증명이 없는 모든 이론은 힘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과학, 이성, 지성은 이 시대에 절대적인 힘을 얻고 있다.

증명은 무엇인가? ‘a는 b다’ 라는 주장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ex-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등). 그리고 그 증명은 인간의 판단에 절대적 기준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진실만, 참된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과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증명으로 하루 아침에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믿는바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첫째 아들처럼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절대신념이 그에 반하는 둘째 동생과 같은 사람을 죽여왔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이다. '신앙이 종교화'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종교재판'이다.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절대신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틀로 모든 것을 분리 시켰다.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은 적이 되고, 이 세상을 해악하게 하는 제거의 대상이 된다.

3. 인간의 지식과 그에 기반한 이성은 내가 원하는 바로 조작이 가능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인가? 돈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른 판단'이다. 송사하는 자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을 어떤 사람이 담아내느냐에 따라 절대성 있는 법이 인간의 욕망에 따라 조작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 위에 존재하고 싶었던 인간. 그래서 '판단자'가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은, 결국 금단의 선악과를 먹었다.

[창세기 2:17]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17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선악을 알게하는 '지식(knowledge)'의 소유에 대한 인간의 절대 믿음이 '욕망'이다. 욕망은 무엇인가?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욕망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위치에 오르고 싶었다 (바벨탑). 욕망이 집중되면 '교만'이 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자랑'에 있는 것이다. 자신을 증명하는 '돈, 권력, 지성' 등 남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한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을 언제나 자기 판단 밑으로 본다.

이들은 문제를 안고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하다. 복음서에는 같은 랍비였던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첫째 계명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바로 땅의 계명인 둘째 계명에서 차이가 난다. 예수님은 '이웃'을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부자, 가난한 자, 이념이 다른 자, 죄인, 병자 등에 대한 차별이 없으셨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믿는 바 율법과 다른 모든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4. 지혜의 왕 예수님 - 이해의 마음 (탕자와 첫째 아들의 아버지)

지혜는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임한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한 솔로몬 왕의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기 주장의 마음이 아니라, 희생의 마음이다. 지식과 이성은 조작이 가능하다. 그 위 차원에 있는 지혜는 속이지 않는다. 조작할 수 없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지혜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 그 증거가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은 의인(옳은 일) 뿐만 아니라, 죄인(악한 일)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셨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강도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결국 지혜는 '그릇'에 대한 문제이다. 지혜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지혜를 담을 그릇이 본질이다. 오늘 내 마음 안에 욕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욕망의 정의를 다시한번 분명히 하자. 욕망은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며 판단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욕망은 사랑과 반대한다. 욕망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랑은 타인 중심적이고 이타적이다

5.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마귀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여 인간을 속여왔다. 절대성에 대한 의심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 네가 판단자가 되어 '절대적 기준'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통치하고, 힘을 키우라는 것이다. 결국 '네 왕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1) 광야의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이 자신의 신이 아닌지 알고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이 송아지를 만든다. 거짓 생명을 붙여 넣는다. 절대성을 부여한다. 그 절대성은 언제나 자기 편이다. 결국 송아지 우상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2) 적극적 사고방식과 진리

진리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르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나는 못하지만 예수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에 집중한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여정을 갈 수 있다

6.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안에 거하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선과 악을 넘어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왕의 마음이다. 창기와 어울려 놀았던 탕자도,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도와던 큰 아들도, 모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백성 모두를 사랑하는 큰 차원의 왕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15:31-32]

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늘의 지혜는 큰 아들도, 탕자도 존중히 여기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지혜있는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본질'에 집중한다.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더 사랑해야 한다. 판단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 구분과 정죄가 아니라, 희생과 용서와 양보를 연습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지혜는 넘쳐난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이기적인 나를 벗어나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된다.

7. 십자가와 지혜

이런 이기적인 나, 판단에 익숙한 내가 처리되는 곳은 십자가이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며, 그곳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오늘날 내 마음 안에서 실체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성과 지성을 넘어선다.

[고린도전서 1:23-25]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